

EU, 2005년부터 새로운 CAP 시행

작년 6월 EU에 신규 가입한 10개국은 2005년 1월1일부터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라 기본적인 개혁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개혁은 EU의 농가부문 지지방식 변화와 EU 농민들에게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대부분의 보조금이 생산량과 연계 없이 지급될 것이다. 단일직불제(single farm payment)라 불리는 새로운 정책은 환경(environmental), 식품안전성(food safety), 가축후생(animal welfare) 부분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단일직불제의 시행으로 보조금은 생산과 분리되어 지급되어 EU 농민들은 더욱 경쟁적이고 시장지향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보조금이 주로 생산과 연계되어 대규모 농장들에게 유리했던 기존의 직접지불제는 축소되어, 이제는 많은 농민들이 환경친화적이고 고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가축후생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납세자에게는 정부지출의 투명성을, 세계농산물 무역에는 더욱 높은 시장지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CAP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농업농촌개발 집행위원(Commissioner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iann Fisher Boel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05년에 새로이 시작되는 CAP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CAP 개혁은 유럽의 농민들을 진정한 기업가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농촌 지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유럽을 더욱 다양화하고 경쟁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혁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해 전 세계로 인정받는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무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이 개혁된 공동농업정책의 주요 요점을 살펴보면,

(1) EU 농민들을 위한 단일직불제(single farm payment) 혹은 단일지불제(SPS; single payment scheme)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보조금은 생산과 연계 없이 지급될 것이며,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 중 일부분만이 농업생산의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될 것이다.

(2) 단일직불제는 환경, 식품 안정성, 동식물 보건, 가축 후생 등의 부문과 깊은 연관을 맺어나갈 것이다. 더불어 모든 농지가 좋은 농업적·환경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교차준수 cross-compliance).

(3) 더욱 많은 EU의 자금을 통해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policy)이 강화될 것이며, 2005년에 시행되는 EU 생산 규정에 부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가축 후생을 위한 조치들이 농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4)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의 자금조달을 위해 생산과 연계되어 보조금이 지급되어 주로 대규모 농장들이 수혜대상이었던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가 감소될 것이다.

(5) 농민들의 재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비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훈련?가 마련될 것이다.

단일직불제는 곡류, 육류, 우유를 포함하여 주요한 시장 분야에서 시행된다. 또한 2006년에는 담배, 올리브유, 면화 분야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다.

회원국들에게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단일직불제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기존 회원국들 중 10개의 회원국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원국들은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덴마크(Denmark), 독일(Germany), 아일랜드(Ireland), 이탈리아(Italy), 룩셈부르크(Luxembourg), 포르투갈(Portugal), 스웨덴(Sweden), 영국(United Kingdom)이다. 기존 회원국들 중 나머지 5개의 국가(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는 2006년부터 단일직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단일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한 2개의 EU 신규가입국가 몰타(Malta)와 슬로베니아(Slovenia)는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8개의 EU 신규가입국은 단일지역직불제(SAPS; Single Area Payment Scheme)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하나의 재정 권역(financial envelope)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동일한 지불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개의 신규회원국들은 2009년부터 단일지역직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